

# 인터넷 섹스중독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 연구

이 상 준

(가톨릭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섹스중독의 정도와 심리사회적 특성들을 살펴보고, 이들 특성들이 인터넷 섹스중독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생 1,74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구대상 청소년의 1.3%가 심각한 중증중독 상태에 있고, 2.3%는 중등도중독 상태에 있으며, 4.2%는 경미한 중독 상태에 있어 전체 청소년의 7.8%가 인터넷 섹스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 섹스중독의 정도는 중학생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실업계 고등학생이며, 인문계 고등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이 남학생일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부부관계가 나쁠수록,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낮을수록 인터넷 섹스에 더 많이 중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터넷 섹스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일반이용 청소년들에 비해 정신과적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청소년들의 인터넷 섹스중독이 심할수록 정신과적 증상이 심해졌으며, 인터넷 섹스중독은 특히 공포불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섹스중독 정도가 심할수록 정신과적 증상 T-score가 높아졌으며, 임상적 정신병리를 경험하는 T-score 70점 이상인 청소년들은 9개 증상차원에 따라 10.9%에서 45.2%까지 높게 나타났다.

주제어: 인터넷 섹스중독, 심리사회적 특성, 정신건강, 청소년

## 1. 서 론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은 이미 일상생활의 도구가 되었으며, 정보화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급증한 가운데 청소년이 인터넷 음란물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음란사이트나 음란채팅 등을 통한 인터넷 섹스 중독의 부작용도 심해지고 있다.

인터넷 섹스중독(cybersexual addiction)은 인터넷상에서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성과 관련된 내용을 찾기 위해 성인대화방이나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Young, 1998). 인터넷 섹스중독은 인터넷 게임중독이나 도박중독과 같이 인터넷 중독의 한 하위유형으로 분류된다. 인터넷 중독은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인터넷 이용으로(Goldberg, 1996), 인터넷 섹스중독과 같은 특정한 경향에 대한 몰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포괄적인 중독증상이라 할 수 있다.

전국 중·고등학생 2509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조사결과, 인터넷 중독 증세를 보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27.5%와 23.8%로 나타나 청소년 4명 중 1명이 인터넷 중독상태에 있으며, 59.3%의 청소년들은 인터넷 음란물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다(동아일보, 2003. 3. 11). 고등학생 87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홍은숙, 2001)에서는 청소년의 94.6%가 인터넷 음란물을 시청한 적이 있다고 하여 인터넷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은 이미 인터넷 음란물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호기심이 많고 판단력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초등학생들이 인터넷 음란물을 보고 교내에서 성행위를 흉내낸 사건(동아일보, 2003. 7. 4)은 성적 수치심이나 죄의식 없이 성적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상에서 접하는 정보의 음란성과 그 폐해가 잘못된 성문화를 조장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이버 성폭력이나 실제 성관계 또는 청소년 성매매 등의 성범죄까지 유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섹스중독의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절박하다.

최근에 이루어진 청소년의 인터넷 섹스중독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남영옥 등(200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7.6%가 인터넷 섹스중독 상태에 있었으며, 김민(2002a)의 연구에서는 5.73%가 인터넷 섹스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인터넷 섹스중독이 현실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자들 중에서 인터넷 섹스중독자들이 많았고, 인터넷 섹스중독자 역시 어떤 수준으로든 인터넷 중독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섹스중독 현상이 기본적으로 인터넷 중독과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인터넷 중독의 각 하위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인터넷 중독의 전반적 실태나 인터넷 중독자의 개인적 특성 등과 관련된 영역에 한정되어져 왔다(윤재희, 1998; 송원영, 1999; 안석, 2000; 이계원, 2001). 이로 인해 게임중독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중독의 특정 하위유형별로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나타나는 중독현상이나 이것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인터넷 섹스중독은 인터넷 중독현상 중에서 청소년에게 가장 심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인터넷 음란물의 접촉실태와 그 영향을 알아보는 데 그치고 있고(김혜원, 2001; 김민, 2002b; 이해경, 2002), 인터넷 섹스중독에 초점을 둔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어(김민, 2002a; 남영옥·이상준, 2002) 청소년들의 인터넷 섹스중독에 대한 실태과악과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섹스중독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실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섹스중독을 유발하는 개인적, 환경적 특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한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정신증상에 관한 연구(권구영·이혜자, 2002)에서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이 인터넷 이용목적에 따라 유의한 정신과적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려대의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천병철·김정숙, 2003)에서도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할수록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면 대인기피증, 강박관념 등의 증상이 심화되고, 심한 경우에는 환각 등의 정신병 증세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동아일보, 2003. 7. 4).

인터넷 섹스중독이 아직 수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인터넷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 섹스중독도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섹스중독으로 인한 정신건강상의 문제 또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인터넷 섹스중독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섹스중독의 정도와 심리사회적 특성들을 살펴보고, 이들 특성들이 인터넷 섹스중독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인터넷 섹스중독으로 인한 정신건강의 수준을 파악하고, 인터넷 섹스중독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인터넷 섹스중독에 대한 예방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인터넷 섹스중독과 정신건강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인터넷 섹스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청소년들의 인터넷 섹스중독은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 선행연구

### 1) 청소년의 인터넷 섹스중독

인터넷 섹스(cybersex)란 인터넷과 무선정보통신망에서 이용가능한 노골적이고 음란한 성관련 정보와 자극의 일체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포르노그래피를 포함하는 사이버 포르노그래피, 음란게임물, X등급 이미지, 동영상, 음란소설 등은 물론 이성간의 오프라인상 접촉 제안, 에로틱한 채팅과 메일 등도 포괄한다(김민, 2002a). 따라서 인터넷 섹스중독은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즐겨보고 몰두하는 제한적 행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온라인 접속 시에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성적인 몰입과 강박현상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인터넷 중독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다.

Young(1998)은 인터넷 중독의 분명한 원인 중 하나로 인터넷 섹스를 들고 있다. 인터넷 중독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인터넷 섹스중독에 속한다고 보았으며, 이들은 자이존중감이 낮고, 자기통제력이 부족하며, 감정조절능력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일수록 중독에 빠지기 쉽다고 보았다.

Cooper 등(1999)은 인터넷 섹스중독의 독특한 특성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이용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정당화하려고 부정하고, 자주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려고도 한다. 둘째, 자신의 행위를 중단하려는 결심과 노력이 계속 실패하고 이러한 실패지향적인 노력을 반복한다. 셋째, 환상에 빠져 욕망을 충족시킬 기회를 구상하고, 그런 행동을 숨기려고 시간을 낭비하는 등 인터넷 섹스에 과도한 시간을 소비한다. 넷째, 이러한 행위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점점 분명하게 이용자의 직무와 습관, 그리고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알면서도 인터넷 섹스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섹스에 관한 수많은 중독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Young은 여섯 가지 공통적인 선행관계의 문제들, 즉 빈약한 의사소통기술, 미해결된 성적 불만족, 자녀양육 실제에서의 차이, 최근 가족 및 친구와 같은 지지집단으로부터 멀어짐, 재정문제들, 서투른 갈등해결기술들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인터넷 섹스와 다른 기타 인터넷 중독들은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로부터 받는 압력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지만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고 본다(Watters, 2001).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매우 민감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섹스중독에 빠지는 원인은 음란물을 접촉하는데 타인의 통제를 받지 않고,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구할 수 있는 양이 많고, 자극적인 음란물이 계속 공급된다는 점 등이다(어기준, 2002). 이러한 인터넷 섹스중독은 청소년의 생활적응력을 약화시키고, 일상생활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낮은 상대와 인터넷과 실생활에서 일회적인 성관계를 맺는데 탐닉하게 되면 친밀감을 토대로 한 인간관계는 물론 이후의 성관계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청소년 인터넷 섹스 중독의 특성과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 2) 인터넷 섹스중독의 심리사회적 특성

Sheffield(1937)는 개인의 내면과 외면의 요인 모두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서 ‘심리사회적(psychosocial)’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Meyer, 1995). 즉, 인간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심리 내적인 면과 사회적 환경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특성을 개인을 특징짓는 심리적인 변수로 보고, 개인적 특성, 가족특성, 사회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개인적 특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현상에 대한 연구들이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인터넷 중독자들의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대인예민성, 자아존중감, 우울, 충동성, 외로움, 공격성, 불안 등의 개인적 특성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윤재희, 1998; 송원영, 1998; 임효정 2000; 박구연, 2001; 이계원, 2001). 여러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볼 때,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들이 인터넷 중독의 하위유형인 인터넷 섹스중독의 한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본다.

자기통제란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기통제의 실패는 여러 가지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특히 충동조절의 장애 또는 중독적인 형태로 나타나

기 쉽다. Young(1996)은 인터넷 중독을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용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병적 도박과 같은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분명한 중독조절장애라고 하였다. 자기통제력이 높은 청소년은 인터넷상의 즉각적인 만족과 더불어 현실세계에서의 많은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인관계를 지속시키며, 현실세계의 효능감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반면,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은 인터넷상의 즉각적인 만족에 계속 집착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적응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이른다(송원영, 1998). 이처럼 인터넷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자기통제력이 더 낮다는 연구결과들(송원영, 1998; 박구연, 2001; 이계원, 2001)을 볼 때, 자기통제력은 인터넷 섹스중독의 중요한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인 동시에, 특정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다(Owen, 1988). 인터넷상에서의 활동 역시 인간행동의 일종이므로 인터넷 상황에서 자신이 유능할 것이라는 판단과 인터넷상의 이용이 자신에게 충분히 강화물을 제공할 것이라는 신념은 현실에서와 같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송원영, 1998). Krout 등(1998)는 인터넷상에서의 많은 활동은 현실세계로부터 고립과 지지망 축소 등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실세계에서의 자기효능감이 높지 않다면 더욱 인터넷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인터넷 중독군으로 갈수록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연구(이계원, 2001; 이석범, 2001)를 볼 때, 자기효능감이 인터넷 섹스중독에 이르게 하는 한 원인이 된다고 가정할 수 있겠다.

인터넷은 개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혼자가 있기를 선호하며, 친구나 동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용률이 높다(박구연, 2001). Young(1996)은 인터넷 중독자들의 53%가 심각한 대인관계 문제가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가까운 친구관계, 연인관계에서부터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1998)에서는 인터넷 중독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대인관계성향을 가지며, 이러한 부정적 대인관계는 심리적 우울이나 불안, 초조, 외로움을 만들 수 있고, 그 해결방안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송원영(1998)도 인터넷 중독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이 낮은 대인관계 효능감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인터넷이 현실생활의 대인관계에서 부적절감이나 외로움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회피적 대처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의 부적응은 인터넷 섹스중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가족특성

가족은 하나의 체계로서 가족 내부에서 발생하는 발달과업이나 생활주기를 통해 가족구성원의 변화를 유발하며, 청소년들에게 주요한 정서적 지지와 사회화를 제공한다.

부부관계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초체계로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부부 및 부모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밖의 여러 가지 역할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잦은 불화가 부모와 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며, 부부불화와 자녀의 문제행동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박현선·김유경, 1997; 엄명용, 2001). 최근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부관계가 나

빨수록 사이버 섹스중독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영옥·이상준, 2002).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부부관계가 청소년의 인터넷 섹스중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부모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경험한 청소년은 높은 학업성취와 긍정적 자아개념 및 자기통제력을 갖는다(Bell and Longfellow, 1984, 황수정, 2000 재인용). 따라서 가족에게서 느끼는 지지는 청소년의 인성과 성격 발달,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Mena 등은 가족지지 구조는 스트레스적인 사건에 대해 도와주고,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개발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불안을 경감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Young(1998)은 사람들이 가족에서 고립감을 느낀다면,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고, 감추어져 있는 면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에 빠질 수 있다고 하였다. 안석(2000)의 연구에서 가족지지가 약할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가족성원들이 상호간에 비지지적이고 냉담하다면, 청소년 자녀는 인터넷 섹스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응집성이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 즉, 가족원간의 친밀감과 일체감을 느끼는 정도로 가족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Olson 등(1985)은 응집성이 적절한 수준일 때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착의 정도가 개인의 자율성과 균형을 이루면서 효율적인 가족기능을 수행하고, 개인의 정서적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약물남용 청소년들의 가족응집성에 대한 Volk 등(1989)의 연구에서는 약물경험 청소년들이 무경험 청소년들보다 가족응집성이 3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구연(2001)의 연구에서도 가족응집성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가족응집성이 인터넷 섹스중독과 관련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 (3) 사회적 특성

친구관계는 자발적인 상호의존적 관계라는 새로운 대인관계의 시초가 되며, 친구는 가족원들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지지와는 다른 성질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지원이다(황수정, 2000). 따라서 청소년들은 또래로부터 배척당하거나 소외당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결과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 부모 등 기성세대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을 모방하게 된다(이계원, 2001). 청소년들의 친구관계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조춘범, 2001), 인터넷 중독집단보다 비중독집단이 친구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석, 2000; 이계원, 2001). 이를 통해 볼 때, 친구지지가 인터넷 섹스중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교사는 청소년들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이며 사회적 환경 안의 중요한 타인으로서 청소년의 지적 성숙은 물론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금의 입시위주의 교육체제하에서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불신을 갖게 되고 교사들 또한 학생들에게 무관심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교사와의 관계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소외감과 심리적 압력을 유발하여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된다. 인터넷은 청소년들에게 게임, 오락정보 등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오락성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쉽게 인터넷에 몰입하게 한다(조춘범, 2001).

청소년들의 교사관계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 교사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계원, 2001).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교사지지가 인터넷 섹스중독과 관계가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은 입시위주의 교육이다.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시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수업방식이나 학생들의 지도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맞추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장래희망과는 관계없이 입시위주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조준범, 2001).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 및 입시체제 등에 대한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체물들을 찾게 되고 몰입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학교의 규칙이나 입시체제에 만족할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준범, 200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인터넷 섹스중독과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 3) 인터넷 섹스중독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정신건강(mental health)이란 단지 정신적 질병에 걸려 있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와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개인적, 사회적 적응을 포함하며, 어떠한 환경에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하고 균형되고 통일된 인격의 발달을 의미한다(민성길, 2000).

인터넷 섹스중독은 인터넷 음란사이트나 음란채팅에 의존하고 몰입하려는 강박적 성향을 갖는 중독현상으로, 이는 정신건강에 대한 병리적 상태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강박성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한 죄책감을 유도하여 또 다른 병리적 위험성을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섹스중독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음란물을 보다가 몇 차례 발각되어도 또 다시 보며, 자위행위를 과도하게 하고, 죄의식에 결벽증과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어기준, 2002).

국내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섹스중독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전무하다. 외국 문헌에서도 이와 관련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다만 인터넷 중독과 다른 정신과 동반질환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졌는데, Orzack(1999)에 의하면 정동장애와 불안장애, 사회공포증,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변태성욕, 불면증, 병적 도박, 다른 중독증 등이 인터넷 중독과 흔히 함께 진단되는 정신과 질환이라고 하였다. 인터넷 중독의 정신병리학적 연구로서 Griffiths(1997)는 인터넷상에서의 대화방, 환타지 게임 등은 모두 얼굴을 맞대는 인간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익명의 이용자가 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다른 사회적 정체성을 갖도록 해주며, 그럼으로써 이용자들은 자신감을 올릴 수 있으면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보상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석범(2001)의 연구에서는 한국판 상태 및 특성 불안척도에서 인터넷 중독군으로 갈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나 인터넷 중독군이 현재의 불안정도 및 불안성향 모두가 높았다.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를 통해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 보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이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효정(2000)의 연

구에서는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의 9개 증상차원 모두에서 인터넷 의존집단이 비의존집단에 비해 의미있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권구영 등(200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높아짐에 따라 정신증상 정도가 높았으며, 게임이나 음란물 검색 등의 인터넷 이용목적에 따라 정신과적 증상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인터넷 섹스중독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터넷 섹스중독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 3.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군집표본추출방식을 적용하고자 전체 126개 중·고등학교 중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단순표본추출방식으로 9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9개 학교에서 각각 6개 학급씩을 전수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청소년은 중학생 630명, 인문계 고등학생 720명, 실업계 고등학생 500명으로 전체 1850명이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최종 1742명의 조사자료만 분석에 이용하였다.

#### 2) 조사도구

##### (1) 인터넷 섹스중독 척도

Young(2002)이 개발한 인터넷 섹스중독검사항목(The Cybersexual Addiction Index: CAI)을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항목은 6개(not applicable=0, rarely=1, occasionally=2, frequently=3, often=4, always=5)이지만 최저값이 0이기 때문에 5점 척도이다. 이 도구는 총점의 합으로 중독여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수의 합계가 0-30점이면 '비중독', 31-49점이면 '경미한 중독', 50-79점이면 '중등도 중독', 80-100점이면 '중증중독' 상태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9506으로 나타났다.

##### (2) 개인적 특성

① 자기통제력 -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자기통제력 척도를 남현미(1999)가 재구성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문항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20점에서 10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문제행동을 피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크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7293으로 나타났다.

② 대인관계기술 - Schlein과 Guerney의 대인관계 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RCS)를 박현선(1998)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7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기술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6914로 나타났다.

③ 자기효능감 - Paulhus와 Delroy(1983)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Spheres of Control Battery Items)를 송원영(1998)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적인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통제력을 개인, 대인관계, 사회정치적인 범위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검사로, 각 하위척도마다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송원영이 사용한 개인적 효능감 9문항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적절한 6문항을 선별하여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6433으로 나타났다.

### (3) 가족특성

① 부부관계 - 청소년 부모의 부부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Porter와 O'Leary(1980)가 개발한 부부 불화 척도를 김준호와 김선애(1996)가 변안 사용한 문항 중 2개 하위요인 5개 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들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8075로 나타났다.

② 가족지지 - Duban과 Ulman(1989)이 사용한 가족지지 척도와 박지원(1986), 김명숙(1994)의 사회적 지지척도를 참고로 이명화(1998)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 중 가족지지와 관련된 5문항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가족지지를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9244로 나타났다.

③ 가족응집성- Olson, Portner와 Lavee(1985)가 개발한 FACES-III(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를 박현선·이상균·제갈정(2001)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10개 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정서적 유대와 지지 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8426으로 나타났다.

### (4) 사회적 특성

① 친구지지 및 교사지지 -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를 평가하는 척도는 Duban과 Ulman의 사회적 지지 평가 척도를 이명화(1998)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지지 평가척도 중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와 관련된 문항을 각각 5문항씩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지지와 교사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친구지지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830이고, 교사지지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7858로 나타났다.

② 학교만족도- 조준범(2001)이 사용한 학교생활만족도 척도에서 학교교육과정 및 입시체제 만족에 관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6483으로 나타났다.

### (5) 정신건강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개정판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 : SCL-90-R)를 김재환과 김광일(1984)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SCL-90-R은 심리치료나 향정신병 약물사용의 효과를 측정하고, 심리진단검사를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다차원적 증상목록(Multi-dimensional Self-Report Symptom Inventory) 검사이다. 총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9개의 정신과적 증상차원(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 1개의 심리적 증상을 대표한다. 검사를 받는 사람은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응답항목은 5개(전혀 없다=0, 약간 있다=1, 웬만큼 있다=2, 꽤 심하다=3, 아주 심하다=4)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T-score는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척도의 모집단(평균 50, 표준편차 10)에 대한 점수로서, 임상적 정신병리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T-score가 70점 이상이면 임상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규준에 의하면, 16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고등학생 규준을 잠정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9개 하위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적대감 .8255에서 우울 .9124까지로 높게 나타났고, 전체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9824로 나타났다.

###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작성된 설문지를 통하여 2003년 4월 30일부터 5월 16일까지 연구목적에 맞게 선정된 중·고등학교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의뢰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먼저 청소년의 인터넷 섹스중독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섹스중독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t 검증과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인터넷 섹스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넷 섹스중독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일반적 특성	사례수	백분율(%)	전체
성별	남학생	846	48.6	1742
	여학생	896	51.4	
학교급별	중학교	567	32.6	1741
	인문계 고등학교	685	39.3	
	실업계 고등학교	489	28.1	
학년별	중학교 1학년	188	10.8	1738
	중학교 2학년	186	10.7	
	중학교 3학년	192	11.2	
	고등학교 1학년	374	21.5	
	고등학교 2학년	407	23.4	
	고등학교 3학년	391	22.4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남학생 846명(48.6%)과 여학생 896명(51.4%)으로 총 1,742명이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이 567명(32.6%)이었고, 고등학생이 1,174명(67.4%)이었다. 고등학생 중 인문계 학생이 685명(39.3%)이었고, 실업계 학생이 489명(28.1%)이었다.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이 188명(10.8%)이었고, 2학년이 186명(10.7%), 3학년이 192명(11.2%)이었으며, 고등학생 중에는 1학년이 374명(21.5%), 2학년이 407명(23.4%), 3학년이 391명(22.4%)이었다.

### 2) 청소년의 인터넷 섹스중독

#### (1) 인터넷 섹스중독 현황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 1,742명 중 인터넷 음란물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청소년이 164명이었다. 이들 164명의 청소년들은 인터넷 섹스중독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후의 분석에서는 이들을 제외한 1,578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터넷 섹스중독 척도점수에 따라 0-30점은 '일반이용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31-49점은 '경미한 중독집단', 50-79점은 '중등도중독집단', 80-100점은 '중증중독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네 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분포를 나타낸 것이 <표 2>이다.

&lt;표 2&gt;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섹스중독 점수 분포

단위: 명(%)

인구사회적 특성		인터넷 섹스중독				전체	x <sup>2</sup>	df	sig.
		일반 이용집단	경미한 중독집단	중등도 중독집단	중증 중독집단				
전체		1455(92.2)	67(4.2)	36(2.3)	20(1.3)	1578	-	-	-
성별	남학생	695(86.2)	60(7.4)	32(4.0)	19(2.4)	806	82.112	3	.000
	여학생	760(98.4)	7(.9)	4(.5)	1(.1)	772			
학교 급별	중학교	423(91.6)	17(3.7)	13(2.8)	9(1.9)	462	12.564	6	.051
	인문고	602(93.9)	27(4.2)	11(1.7)	1(.2)	641			
	실업고	430(90.7)	23(4.9)	12(2.5)	9(1.9)	474			
학년 별	중학교 1학년	130(94.2)	4(2.9)	2(1.4)	2(1.4)	138	4.261	6	.641
	중학교 2학년	136(92.5)	4(2.7)	5(3.4)	2(1.4)	147			
	중학교 3학년	157(88.7)	9(5.1)	6(3.4)	5(2.8)	177			
	고등학교 1학년	323(92.0)	15(4.3)	7(2.0)	6(1.7)	351	5.364	6	.498
	고등학교 2학년	363(93.3)	15(3.9)	8(2.1)	3(.8)	389			
	고등학교 3학년	344(92.2)	20(5.4)	8(2.1)	1(.3)	373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의 92.2%(1455명)는 ‘일반이용집단’에 포함되었으며, 4.2%(67명)는 ‘경미한 중독집단’에, 2.3%(36명)는 ‘중등도중독집단’에, 그리고 1.3%(20명)는 ‘중증중독집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7.8%(123명)가 인터넷 섹스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경미한 중독집단과, 중등도중독집단, 중증중독집단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일반이용집단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일반이용집단에 포함된 분포의 비율은 인문계 고등학생이 93.9%로 가장 높았으며, 경미한 중독집단에 포함된 분포의 비율은 실업계 고등학생이 4.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중등도중독집단과 중증중독집단에서는 중학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중학교에서는 모든 중독집단에서 3학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에서는 3학년이 경미한 중독집단에서 그리고 1학년이 중증중독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섹스중독에 있어 대부분의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일반이용집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인터넷 섹스중독 비율이 7.8%로 나타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권과 청주지역 청소년 1,42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민, 2002a)에서 인터넷 섹스중독으로 나타난 5.7% 보다는 높았으며, 대구지역 중·고등학생 1,69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남영옥·이상준, 2002)에서 인터넷 섹스중독이 7.6%로 나타난 결과와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섹스중독이 청소년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2)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섹스중독 정도

인터넷 섹스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섹스중독 점수를 비교한 것이 <표 3>이다.

<표 3>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섹스중독 점수 차이

구 분	인구사회적 특성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 F	Scheffe
전 체		123	53.16	19.76		
성별	남학생	111	53.39	19.99	.382	
	여학생	12	51.08	18.09		
학교급별	중학교(A)	39	57.67	21.89	4.410*	A<B
	인문고(B)	39	45.56	13.42		
	실업고(C)	44	55.25	20.74		
학년별	중학교 1학년	8	55.63	23.50	.061	
	중학교 2학년	11	59.27	23.11		
	중학교 3학년	20	57.60	21.70		
	고등학교 1학년	28	55.36	22.02	1.685	
	고등학교 2학년	26	50.27	17.06		
	고등학교 3학년	29	46.59	14.40		

\*p<.05

조사대상 청소년들 중 인터넷 섹스중독으로 분류된 123명(7.8%)의 인터넷 섹스중독 평균점수는 53.16점으로 중등도중독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년별에 따라서는 점수별 분포에 큰 차이가 없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평균 57.67점이었고, 다음으로 실업계 고등학생이 55.25점, 인문계 고등학생이 45.56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중학생의 인터넷 섹스중독 정도가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더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섹스중독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남영옥·이상준, 2002)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인터넷 섹스중독이 더 심하게 나타난 것은 인터넷 섹스중독에 대한 위험성이 점점 저연령화되어 간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재학 시 인터넷 음란물을 처음 접하고, 인터넷 음란물 최초 접촉시기 연령이 낮을수록 청소년들이 보다 더 부정적인 성관련 정서 및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홍은숙, 2001)를 볼 때, 인터넷 섹스중독에 있어 저연령화 현상은 청소년들에게 보다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된다.

3) 인터넷 섹스중독의 심리사회적 특성과의 관계

조사대상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인터넷 섹스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 투입된 독립변수군은 인구사회적 특성, 개인적 특성, 가족특성, 사회적 특성이다.

<표 4>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인터넷 섹스중독 점수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인터넷 섹스중독			
		B	$\beta$	SE	t
인구사회적 특성	성별	-9.405	-.335	.707	-13.306***
	학교급	.605	.019	.780	.776
개인적 특성	자기통제력	-5.042	-.147	.948	-5.320***
	대인관계기술	.199	.007	.794	.251
	자기효능감	-.430	-.018	.673	-.639
가족 특성	부부관계	-2.106	-.120	.482	-4.370***
	가족지지	-.973	-.069	.491	-1.982*
	가족응집성	1.157	.058	.726	1.594
사회적 특성	친구지지	-2.012	-.106	.543	-3.709***
	교사지지	.904	.050	.494	1.832
	학교만족도	-.102	-.005	.517	-.198
상수 R <sup>2</sup>		44.320*** 0.172			

\*p<.05 \*\*\*p<.001 (성별: 0=남학생, 1=여학생 학교급: 0=중학교, 1=고등학교)

다중회귀분석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 계수를 확인하였으나 독립변수간에는 가족지지와 가족응집성간에 .708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진단을 위해 회귀분석에서의 VIF값, 공차한계값(tolerance)을 확인한 결과, 최고값이 2.181, 최저값이 .459로서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인터넷 섹스중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335)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자기통제력(-.147)이었고, 부부관계(-.120), 친구지지(-.106), 가족지지(-.069)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은 모두 인터넷 섹스중독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변인의 인터넷 섹스중독에 대한 설명력은 17.2%로 나타났다.

먼저, 인구사회적 특성이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인터넷 섹스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과 학교급 중 성별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beta$ 값의 절대값이 -.335로 인터넷 섹스중독과 부(-)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학생일수록 인터넷 섹스중독 정도가 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일수록 인터넷 섹스중독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민, 2002a; 남영옥·이상준, 2002)와 일치한다. 따라서 인터넷 섹스중독에 대한 개입은 남학생에게 더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개인적 특성이 인터넷 섹스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기통제력, 대인관계기술, 자기효능감 중 자기통제력만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개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자기통제력의  $\beta$ 값이 -.147로 인터넷 섹스중독과 부(-)의 관계에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섹스중독 경향이 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자기통제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송원영, 1998; 박구연, 2001; 이계원, 2001)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더 큰 만족을 위해 욕구를 지연하기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충동적이며 집중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인터넷 섹스중독에 더 빠지기 쉬울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가족특성이 인터넷 섹스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부관계와 가족지지, 가족응집성 중 부부관계와 가족지지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응집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부부관계의  $\beta$ 값이  $-.120$ 으로 가족지지의  $-.069$ 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두 변인 모두 인터넷 섹스중독과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관계가 나쁠수록, 가족지지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섹스중독 경향이 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가 나쁠수록 인터넷 섹스중독의 정도가 심해진다는 연구(남영옥·이상준, 2002)와, 가족지지가 약할수록 인터넷의 중독적 이용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안석, 2000)와 일치한다. 즉, 부부간의 불화정도가 높고, 가족성원간에 지지적이지 못한 역기능적 가족환경에 있는 청소년일수록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지게 되어 인터넷 섹스에 중독적으로 몰입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특성이 인터넷 섹스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친구지지와 교사지지, 학교만족도 중 친구지지만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개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친구지지의  $\beta$ 값이  $-.106$ 으로 인터넷 섹스중독과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친구지지가 낮을수록 인터넷 섹스중독 경향이 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지지가 낮을수록 인터넷 섹스중독에 빠지기 쉽다는 연구(남영옥·이상준, 2002)와는 일치하는 반면, 친구들의 지지가 좋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 쉽다는 연구(이계원, 2001)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단순한 인터넷에 대한 몰입은 친구들과의 우호적 관계 속에서 강화될 수 있지만, 인터넷 섹스에 대한 중독적 몰입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비우호적일수록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즉, 인터넷 섹스중독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보다는 개인의 은밀함 속에서 발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인터넷 섹스중독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결과로, 인터넷 섹스중독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 4) 인터넷 섹스중독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 (1) 조사대상자의 정신건강 정도

조사대상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SCL-90-R 척도를 사용하여 9개 차원의 정신과적 증상으로 측정하였다.

&lt;표 5&gt; 조사대상자의 집단에 따른 정신과적 증상 점수 분포

정신과적 증상	전체 청소년 (n=1577)	인터넷 일반이용집단 (n=1455)	인터넷 섹스중독집단 (n=122)
신 체 화	.80	.75	1.41
강 박 증	1.16	1.11	1.76
대인예민성	1.09	1.04	1.61
우 울	.97	.92	1.50
불 안	.79	.73	1.46
적 대 감	.92	.86	1.59
공 포 불 안	.46	.39	1.27
편 집 증	.83	.78	1.42
정 신 증	.71	.66	1.42

<표 5>와 같이 각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집단별 점수분포를 보면, 조사대상 전체 청소년과 인터넷 일반이용집단은 유사한 점수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 두 집단에 비해 인터넷 섹스중독집단의 정신과적 증상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화, 불안, 적대감, 편집증, 정신증 등의 점수는 인터넷 섹스중독집단이 일반이용집단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았으며, 공포불안은 약 3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청소년과 일반이용집단, 인터넷 섹스중독집단 모두에서 강박증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공포불안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김재환·김광일, 1984; 김용석, 2001)와도 일치하고 있다.

## (2) 인터넷 섹스중독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인터넷 섹스중독이 정신과적 증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단계별로 투입된 변수는 성별과 학교급, 인터넷 섹스중독이었다. 청소년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투입된 인터넷 섹스중독은 정신과적 증상 9개 차원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인터넷 섹스중독의 기울기( $\beta$ 값) 절댓값이 가장 큰 변인은 정신과적 증상 중 공포불안이(.424)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신증 .367, 불안 .358, 신체화 .339, 강박증 .335, 적대감 .334, 편집증 .308, 우울 .307, 대인예민성 .295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인터넷 섹스중독의 설명력은 공포불안이 15.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신증 12.0%, 불안 11.3%, 신체화 10.2%, 강박증과 적대감이 9.9%, 우울과 편집증이 8.4%, 대인예민성 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섹스중독이 각 정신과적 증상 중에서 공포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정신증, 불안 등 다른 정신과적 증상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섹스중독의  $\beta$ 값이 모두 정(+)적으로 정신과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 섹스중독 정도가 심할수록 정신과적 증상이 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청소년의 인터넷 섹스중독이 정신과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

단계별 투입순서		신체화				
		B	β	SE	R <sup>2</sup> 변화량	F값
step1	성별	.165***	.114	.037	.005	4.262*
	학교급	.108**	.067	.038		
step2	인터넷 섹스중독	1.612E-02***	.339	.001	.102	63.106***
강박증						
step1	성별	.247***	.158	.041	.011	8.815***
	학교급	.158***	.014	.042		
step2	인터넷 섹스중독	1.767E-02***	.335	.001	.099	64.816***
대인예민성						
step1	성별	.144***	.089	.042	.001	1.023
	학교급	5.313E-02	.030	.043		
step2	인터넷 섹스중독	1.563E-02***	.295	.001	.078	44.660***
우울						
step1	성별	.307***	.185	.042	.019	15.332***
	학교급	.184***	.101	.044		
step2	인터넷 섹스중독	1.666E-02***	.307	.001	.084	59.975***
불안						
step1	성별	.222***	.142	.039	.005	3.881*
	학교급	.102*	.059	.041		
step2	인터넷 섹스중독	1.833E-02***	.358	.001	.113	70.348***
적대감						
step1	성별	.163***	.097	.043	.000	.278
	학교급	-2.790E-02	-.015	.044		
step2	인터넷 섹스중독	1.831E-02***	.334	.001	.099	57.876***
공포불안						
step1	성별	6.938E-02*	.054	.031	.008	6.329**
	학교급	-1.805E-02	-.013	.032		
step2	인터넷 섹스중독	1.774E-02***	.424	.001	.159	105.143***
편집증						
step1	성별	.120**	.073	.042	.003	2.028
	학교급	6.646E-02	.037	.044		
step2	인터넷 섹스중독	1.661E-02***	.308	.001	.084	49.633***
정신증						
step1	성별	9.136E-02*	.061	.038	.007	5.604**
	학교급	8.778E-02*	.053	.039		
step2	인터넷 섹스중독	1.800E-02***	.367	.001	.120	76.086***

\*p<.05 \*\*p<.01 \*\*\*p<.001 (성별: 0=남학생, 1=여학생 학교급: 0=중학교, 1=고등학교)  
 결과표에 제시된 회귀계수관련 통계치는 최종단계에서 구해진 값들임.

본 연구의 <표 5>의 결과와 다른 선행연구들(김재환·김광일, 1984; 김용석, 2001)에서 볼 때, 정신과적 증상 중 공포불안이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다른 정신과적 증상에 비해 공포불안을 가장 적게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 6>의 결과에서는 인터넷 섹스중독이 공포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섹스중독이 정신과적 증상 중 특히, 공포불안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공포불안이란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 대상 또는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이고도 불합리한 두려움이 생겨 회피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심한 경우에는 아예 집을 나가려 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마저도 두려워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고, 학교 출석에 어려움을 겪으며,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스스로 이겨보려는 노력 때문에 알코올이나 약물남용으로 빠지게 되는 수도 많다(민성길, 2000). 따라서 인터넷 섹스중독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공포불안과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이다.

(3) 인터넷 섹스중독 정도에 따른 정신건강 정도

<표 7> 인터넷 섹스중독 정도에 따른 정신과적 증상 T-score

정신과적 증상	남학생(n=111)			여학생(n=12)		
	경미한 중독집단 (n=60)	중등도 중독집단 (n=32)	중증 중독집단 (n=19)	경미한 중독집단 (n=7)	중등도 중독집단 (n=4)	중증 중독집단 (n=1)
신 체 화	60	64	78	55	61	94
강 박 증	54	56	64	56	60	90
대인예민성	53	56	64	54	56	74
우 울	54	58	67	51	56	83
불 안	55	61	68	51	62	73
적 대 감	53	59	65	63	63	65
공 포 불 안	59	66	84	57	58	93
편 집 증	55	59	69	54	63	83
정 신 증	59	61	71	51	61	94

인터넷 섹스중독 청소년의 중독 정도에 따라 정신과적 증상의 각 차원별 점수를 T-score로 환산하여 제시한 것이 <표 7>이다. T-score는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척도의 모집단에 대한 점수로써, T-score가 70점 이상이면 임상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T-score가 70점 이상일 경우 해당 청소년의 임상적 정신병리를 추정할 수 있다.

<표 7>과 같이 T-score는 51점에서 94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남·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인터넷 섹스중독의 정도가 심할수록 T-score 점수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중증중독집단에서는 공포불안 84점, 신체화 78점, 정신증 71점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경우, 중증중독집단에서 사례수가 1명이기는 하지만 적대감을 제외한 8개 차원이 73점에서 94점까지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독집단에 따라 70점 이하인 경우가 많았으나, 이러한 점수는 단지 평균이며, 개별 사례에 따라 70점을 넘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표 8>은 인터넷 섹스중독 청소년들 중 T-score가 70점 이상으로 임상적 정신병리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8> T-score 70점 이상인 인터넷 섹스중독 청소년

단위: (%)

구 분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전체	118	113	118	117	115	119	115	117	112
T-score 70 이상	34(28.8)	19(16.8)	16(13.6)	18(15.4)	17(14.8)	13(10.9)	52(45.2)	23(19.7)	32(28.6)

각 정신과적 증상차원에 따라 T-score가 70점 이상인 인터넷 섹스중독 청소년들의 비율을 보면, 공포불안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신체화 28.8%, 정신증 28.6%, 편집증 19.7%로 높게 나타났으며, 강박증, 우울, 불안, 대인예민성, 적대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포불안의 경우 인터넷 섹스중독 청소년의 약 45%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정신병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험은 성장단계에 놓인 청소년의 경우 정신적, 정서적 발달과 정체성 확립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성인보다 훨씬 커다란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나이가 어린 청소년일수록 이러한 병리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경우 심리적, 정신적 취약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며, 취약성이 높은 청소년일 경우에는 심각한 정신병리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인터넷 중독이 수면부족, 체력저하, 우울한 기분, 대인기피 경향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우울증, 강박증, 충동조절장애, 사회공포증 등의 심한 정신질환까지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조선일보, 2002. 5. 15). 또한 고려대 의대 정신과에서는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면 대인기피증, 강박관념 등의 증상이 심화되고, 심한 경우에는 환각 등의 정신병 증세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동아일보, 2003. 7. 4). 이러한 견해들은 인터넷 섹스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병리적인 정신과적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결국 인터넷 음란물이나 음란 채팅 등으로 인한 인터넷 섹스중독은 중독 자체만으로도 병리적이며,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사회적, 학업적 어려움 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병리적인 정신과적 증상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섹스중독의 위험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병리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시급하다 하겠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섹스중독의 정도와 심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 특성들이 인터넷 섹스중독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인터넷 섹스중독으로 인한 정신건강의 수준과 그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첫째, 조사대상 청소년의 1.3%가 심각한 중증중독 상태에 있고, 2.3%는 중등도중독 상태에 있었으

며, 4.2%는 경미한 중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청소년의 7.8%가 인터넷 섹스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 섹스중독의 정도는 중학생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실업계 고등학생이었으며, 인문계 고등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인터넷 섹스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 중, 남학생일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부부관계가 나쁠수록,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낮을수록 인터넷 섹스에 더 많이 중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들의 인터넷 섹스중독 정도가 심할수록 정신과적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섹스중독은 특히 공포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 섹스중독이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섹스중독 정도가 심할수록 정신과적 증상의 T-score 점수가 높아졌으며, 임상적 정신병리를 경험하는 T-score 70점 이상인 청소년들은 각 증상차원에 따라 10.9%(적대감)에서 45.2%(공포불안)까지 높게 나타났다. 즉, 인터넷 섹스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정신과적 증상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섹스중독 문제에 대한 개입방안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인터넷 섹스중독과는 무관한 일반이용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 섹스중독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7.8%에 이르는 것은 인터넷 섹스중독의 유해성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을 인터넷 섹스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학교에서의 예방적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부부관계가 나쁠수록,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낮을수록 인터넷 섹스중독 정도가 높아진다는 본 연구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고려할 때, 개인, 가족, 친구관계 등 다중체계적 개입이 효과적이다. 먼저, 자기통제력이 약화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이들이 자기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자신감과 계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개입에 있어서는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가족의 지지기반 확대와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섹스에 몰두하는 청소년들에게 친구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사회성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학생들인 점을 감안하면 학교현장에서 인터넷 섹스중독 정도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중독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초기에 사정하여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인터넷 섹스중독 청소년들이 일반이용 청소년들에 비해 정신과적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고, 이들의 상당수가 임상적인 정신병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섹스중독 청소년의 45%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공포불안을 경험한다는 결과는 이들에 대한 임상적 차원에서의 치료적 개입이 시급함을 말해준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섹스중독과 이들이 경험하는 정신과적 증상에는 인지행동모델에 기초한 치료 프로그램이 적합할 것으로 본다. 인터넷 섹스의 중독행동은 인지적 왜곡과 부적절한 대처기술에서 기인한다. 이들은 음란채팅과 음란물 접속을 하면, 스트레스와 성적 욕구가 해소될 것이라는 자동적 사고를 떠올리게 되고, 인터넷 섹스에 더욱 몰입하게 되어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왜곡된 인지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중독행동이 조절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포불안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비적응적인 자동적 사고내용을 찾아내어 그러한 잘못된 관념이나 지식을 수정하여 적응적인 사고로 대체해 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 섹스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임상적으로 유의한 정신병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터넷 섹스중독 척도는 한국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조사대상의 표집범위가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인터넷 섹스중독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관련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한국적 실정에 맞는 인터넷 섹스중독 진단척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전국단위의 표집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섹스중독과 그 폐해를 명확히 밝힐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섹스중독의 위험성은 컴퓨터 보급률이나 인터넷 이용자의 급증과 같은 사회적 환경을 감안할 때, 그 영향력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인터넷 섹스중독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환경, 그리고 인터넷 섹스중독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정서적 성장과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구영·이혜자. 2002.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 59-86.
- 김광일·김재환.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중앙적성연구소.
- 김만두 외 역. 1999. 사회복지대백과사전. pp. 212-224. Mayer, Carol H. 1995. *Assessment*. Encyclopedia of Social Work(19th). NASW. New York : NASW Press. 나눔의 집.
- 김민. 2002a. 청소년 “인터넷중독과 사이버섹스중독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청소년 인터넷 사용 및 중독 실태와 복지적 접근』. 한국청소년복지학회. pp. 79-144.
- 김민. 2002b. “사이버음란물과 청소년 정신건강, 청소년 관련 음란물의 실태와 대책”. 『제27회 21세기 청소년포럼』. 한국청소년학회. pp. 5-31.
- 김용석. 2001. “청소년의 문제성 음주와 정신증상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7: 27-45.
- 김준호·김선애. 1996. “가족의 구조 및 기능과 반사회적 행동”. 『형사정책연구』 (7)
- 김혜원. 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현황과 그에 대한 원인분석: 인터넷 중독증세와 음란행위를 중심으로”

- 으로”. 『제37회 청소년문제 연구 세미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pp. 20-65.
- 남영옥·이상준. 2002.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과 사이버음란물 접촉 및 성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9(3): 185-212.
- 동아일보 “청소년 4명 중 1명 사이버 중독”. 2003. 3. 11.
- 동아일보 “중·고생 40% 인터넷 중독”. 2003. 7. 4.
- 동아일보 “초등생들 인터넷음란물 성행위 흉내 충격”. 2003. 7. 4.
- 민성길. 2000. 『최신정신의학』. 일조각.
- 박구연. 2001. “가족 기능과 자아개념이 고등학생의 컴퓨터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현선·김유경. “가족관계와 청소년 비행: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2: 113-135.
- 박현선·이상균·제갈정. 2001. “ACOA 선별도구개발 및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유증문화센터.
- 송원영. 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석. 2000.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어기준. 2002. “청소년 음란물 중독의 원인과 대책. 청소년 관련 음란물의 실태와 대책”. 『제27회 21세기 청소년포럼』. 한국청소년학회. pp. 33-48.
- 엄명용. 2001. “아동학대와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가족 내 부모지지 및 감독의 완충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8: 148-176.
- 윤재희. 1998.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 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계원.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화. 1998. “음란매체 접촉에 따른 성갈등에 성태도와 지식이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석범. 2001. “중고교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불안, 우울, 자기효능감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해경. 2002. “청소년들의 음란물, 음란채팅, 폭력게임 중독 경험에 대한 비교분석”. 『청소년학연구』 9(1): 91-114.
- 임효정. 2000. “사이버 의존집단과 비의존집단 간의 심리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선일보 “마약같은 인터넷 사람들이 망가진다”. 2002. 5. 15.
- 조춘범.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문화원. 1998. 『정보사회와 청소년 I』. 한국청소년문화원.
- 홍은숙. 2001. “인터넷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관련 정서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수정.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지지 지각 및 사회적응력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ooper, D., E. Putnam, L. A. Planchon, and S. C. Boies. 1999. “Online Sexual Compulsivity: Getting

- "Tangled in the Net."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6(2): 79-104.
- Goldberg, I. 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http://www.rider.edu/users/suler/psyber/supportg-p.html>
- Griffiths, M. D. 1997. "Does internet and computer addiction exist? some case evidence."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PA annual convention*. Chicago.
- Krout, R., V. Lundmark, M. Patterson, S. Kiesler, T. Mukopadhyay, and W. Scherlis. 199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 1017-1031.
- Olson, D. H., J. Portner, and Y. Lavee. 1985.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n D. Olson, H. McCubbin, H. Barnes, A. Larson, M. Muxen and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Rev.).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Minnesota.
- Orzack, M. H. 1999. "Recognition and Treatment of Computer.com Addictions." *Directions in Psychiatry* 19. Special Report.
- Watters, S. O. 2001. *Real Solution for Overcoming Internet Addictions*. Servent Publications.
-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 237-244.
- Young, K. S. 1998.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ht for Recovery*.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Inc.
- Young, K. S. 2002. *Getting Web Sober: Help for Cybersex Addicts and their loved ones*. [https://secure4.mysecureorder.net/netaddiction/ebooklets/getting\\_web\\_sober-sales.html](https://secure4.mysecureorder.net/netaddiction/ebooklets/getting_web_sober-sales.html)

## A Study on Psychosocial Trait and Mental Health of the Adolescent's Addiction to Cybersex

Lee, Sang-Jun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cybersexual addiction and psychosocial traits.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sexual addiction and mental health were examined. For the study, 1,742 students attending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were survey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tudy, first, 1.3% of the adolescents reported the severe degree of cybersexual addiction, 2.3% of them had the moderate degree of addiction, 4.2% of them showed the minor degree. The result indicated that 7.8% of entire adolescents had cybersexual addiction. Second, middle school students showed the highest rate of cybersexual addiction and the students attending general high schools reported the lowest rate. Third, the following groups were likely to have the higher levels of cybersexual addiction; students who were males, had low self-control and less emotional support from the family and friends, and whose parents had marital problems. Fourth, the cybersexually addicted adolescents had experienced more psychological symptoms than general internet users had. Fifth, there wa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ybersexual addition and psychological symptoms among adolescents. In particular, cybersexual addiction had the most serious effect on phobic anxiety. Finally, T-score measuring the degree of psychopathological symptoms had the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cybersexual addiction among adolescents. Moreover, adolescents who had clinical psychopathology and T-score over 70 showed the various rates from 10.9% to 45.2% in the 9 domains of symptoms.

Key Words : cybersexual addiction, psychosocial trait, mental health, adolescent

[접수일 2003. 9. 10 게재확정일 2003. 11. 4]